

# 함평 '별별캠핑' 지역상생 '나비효과'

### 자연생태공원 캠핑장 핫플레이스 등극 천지한우·한돈 등 농축특산물 판매 늘고 '체류형 관광' 4·4·8 프로젝트 날개 단다

캠핑족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함평자연생태공원의 '별별캠핑'이 함평군의 새로운 지역상생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개장한 함평자연생태공원 오토캠핑장인 '별별캠핑'이 인기몰이 중이다. 이곳에는 최고급 사양의 오토카리반 10대와 글램핑 5동이 운영중으로 5월 가정의 달 1500명에 이어 6월에는 700명이 방문하는 등 캠핑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숙박객들은 도보로 함평자연생태공원에 입장해 드넓은 대동제생태공원을 맘껏 산책하며 캠핑을 즐길 수 있어 특히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별별캠핑에서 함평에서 키우고 자란 함평천지한우, 한

돈을 판매하면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로 구성된 나비꾸리미도 판매할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농가에 새로운 판로를 확보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별별캠핑은 엑스포공원, 일강김철선생기념관, 돌머리해수욕장, 자동차극장 등 함평의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함평에 1박 이상 머무르는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상의 군수 취임 이후 주력하고 있는 '4·4·8 함평관광 프로젝트'(숲에서 4시간, 바다에서 4시간, 함평 숙소에서 8시간 머무르도록 하는 프로젝트)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에 더해, 지역 농축특산물 판로 연계까지 더한 지역발전 상생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오직 함평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키즈펜션과 캠핑을 결합한 이색적인 키즈카리반과 오토카리반을 추가로 설치해 관광객을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함평자연생태공원에 조성된 별별캠핑 야경 모습. 이곳에선 지역 농축산물까지 판매해 농가 소득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담양군, 백신접종자도 마스크 의무화

### 실내의 모두... 위반 당사자 과태료 10만원 등

담양군은 8일 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담양군 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긴장도 유지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기본 방역수칙 준수 실천을 전제로 안전한 여름휴가 나기를 위해 '성수기를 피해서, 가족단위 소규모로, 나눠서 가기'를 핵심 메시지로 선정해 12개 읍면 및 관광지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지속해서 착용해야 한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사적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나주시 어두운 통로박스, LED 터널 됐다

### 98곳 등기구 설치 완료

나주시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도로와 마을을 잇는 어두운 통로박스에 환한 빛을 비췄다. 나주시는 지난 5월부터 사업비 6억원을 투입, 보행자와 차량이 오가는 통로박스(암거) 98개소에 LED등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통로박스 15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후 이번에 LED등기구 187개를 신규로 설치하고 180개를 교체했다. 어둡고 흐린 날씨에 조명이 없어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통로가 한층 밝아지면서 안전 보행과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장 민원이 빈번했던 경천리 한수제 통로박스에 노후 조명시설을 철거, LED등기구로 교체했으며 국도23호선 등 농경지·자연마을을 가로지르는 통로박스에도 LED터널을 신설해 마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은 물론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



한수제 통로박스의 LED 등기구 설치 전(위)과 후(아래) 모습. <나주시 제공>  
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제일도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 강진군, 지자체 일자리대상 '4년 연속' 최우수상

강진군이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중앙평가를 거쳐 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목표 달성도, 일자리 공시제 및 사업실적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강진군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발돼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다. 특히 강진산단 100% 분양 및 가동률 제고,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자 연계, 온라인 직거래 화훼 판매시스템 구축, 여성 일자리 확대, 청년단체 구성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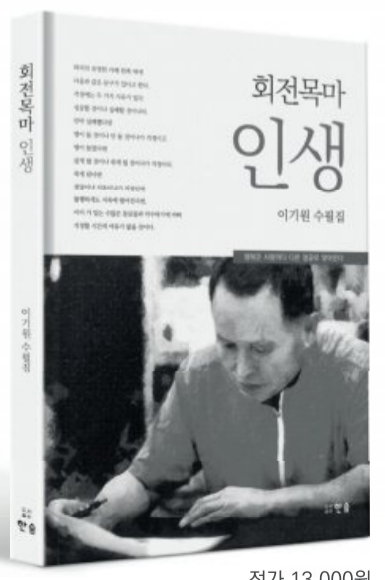
# 장성군, 과수화상병 예방약 긴급 무상 지원

### 사과·배 등 농가 전체

장성군이 전국적인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지역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약제 긴급 지원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일 나무의 잎과 줄기, 열매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고사된다. 세균에 의해 발생되어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은 즉시 폐원 조치되며, 3년 동안 동일 품종의 작물 재배가 금지된다. 장성군은 이 같은 과수화상병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비 4300만원을 투입, 지역 내 전체 과수농가(287.1ha)에 예방약제를 무상 지원했다. 공급된 약품은 화상병 전문 약제로, 생육기 전반

에 걸쳐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 방제 시에는 1병(250g)을 25말(500L)의 물에 희석해 살포하면 된다. 방제와 함께 과수 농가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도 요구된다. 작업을 마친 농기구는 반드시 소독하고 타 과원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선제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를 무료 공급해 농가 소득원을 보전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인생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